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필요성

일단은 무언가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구(이하 협의회)가 탄생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라 불리는 이 시점에서 중책을 맡은 협의회 구성원들이 아무쪼록 활발한 활동으로 위기에 봉착한 한국낙농의 미래에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한 바를 적어 보도록 한다.

사실 생산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낙농업이 되기 위해 새로 탄생한 협의회에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이다.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에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내고 그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그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희망을 말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국가의 산업 특히 농업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큰 틀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틀 안에서 현실성이 고려된 중·단기 정책을 만들어 수요창출과 공급을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 큰 틀의 비전도 제시되지 못하고 아무도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정책운영의 미숙에서 빚어지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처리하느라 몇 천억의 정부기금은 기금대로 투입하고 낙농가는 낙농가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지가 2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정책의 틀조



윤여임
본회 여성분과위원장

차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낙농가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 모든 일의 단초는 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정책의 부재는 정책 전문가를 키워 내지 못한 교육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전문가의 육성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농정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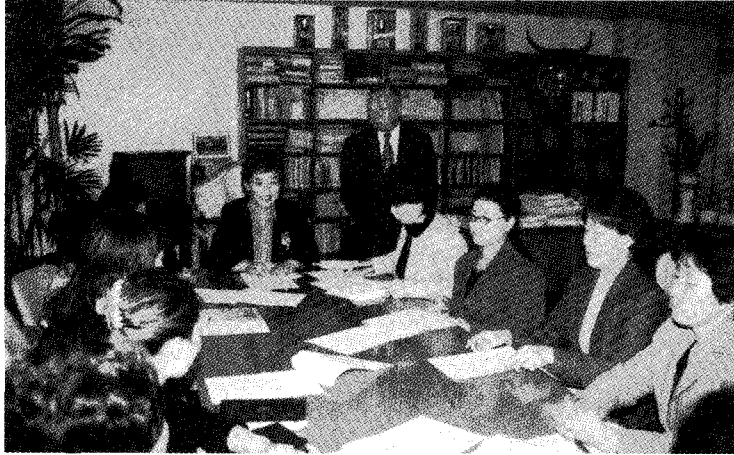
낙농진흥회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진흥회의 존립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무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낙농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진흥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새로운 기구가 다 그렇듯이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예측해야 옳았다고 본다.

이제 학계와 여러 분야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협의회에서 우리 나라 낙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낙농 전 분야를 망라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각 단체의 이익에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기도 했거니와 정책대로 충실히 따른 경우에 입는 손해를 우리는 그 동안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왜 정부는 농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면 뒤로 물러서는 정책을 내어 놓는지 모를 일이다. 충분한 검토와 데이터와 사례들을 연구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면 실력행사를 한다해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이다.

농민들을 설득해서 그 정책이 시행되면 얼마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늘 규제일변도의 정책들이 불법을 양산하고 그런 가운데 불신의 골은 깊어가고 이제는 아무도 정책을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낙농진흥회, 계획 생산제, 조사료 수급정책, 친환경낙농, 소비촉진활동 등 그밖에 낙농에 관련된 많은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기에 앞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훨씬 시급하다고 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우유가 남지 않는데도 기준량 이상의 원

유를 반값 혹은 그 이하에 납유해야 하는 농가의 심정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 농가 이외에는.....

그 차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냥 막연하게 억울한 심정을 안고 남아서 버려도 매일 하루 두 번 씩 착유를 하고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고 사료를 주는 반복작업을 해야만 하는 고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협의회의 활동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진외국이 그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망라하고 한국낙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으로 탄생시켜 낙농업이 지속,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이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아무리 면역력이 강한 우리 낙농인들도 버티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책전문가도 소비홍보 전문가도 낙농산업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교육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 교육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정책전문가도 소비홍보 전문가도 낙농산업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교육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